

공업진흥청, 건설분야 품질관리 향상 대책

공업진흥청은 「건설분야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 건설업체들의 IOS인증 획득 확산을 위해 정부발주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에 있다.

또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KS심사, 품질경영 100선 선정 등에, 심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증획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 ISO 9000 인증 확대

① 인증추진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8월중에 통산부와 건교부 등 정부기관과 인증·연수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획득을 촉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② 전문인증기관 지정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전자채시험연구원 등에 전문인증기관 설립을 협의하여 10월에는 국가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 국립건설시험소를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 육성하도록 하고 기존 7개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건설분야 인증활동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③ ISO 9000 인증업체의 확대

인증 희망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진단 및 지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95년도 추가진단대상 50개 업체를 건설분야 위주로 선정하고 12월중 진단 및 지도를 완료해 우수업체는 인증업체로 유도한다.

④ 인증획득 확산을 위한 지원책 마련

PQ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인증획득 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며 기

술신용보증기금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아울러 기타 KS심사와 품질경영 100선 선정시 심사를 일부 면제해준다.

■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확대

①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정제도의 개요와 지정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리플렛 및 품질매뉴얼 작성요령 등을 배포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진단 및 지도 실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인력, 운영체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1차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도록 한다. 또 기관선정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자재 품질시험 대행기관(59개)과 건설업체 부설연구소(40개)를 우선적으로 진단 및 지도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확대 및 지원

진단 및 지도 결과 우수한 시험·검사기관은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능력을 제고시킨다.

■ 품질경영 체제 확산

①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추진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품질경영 추진본부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며 회원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을 확산한다. 또한 도급순위 50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품질경영 추진본부를 구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② 건설분야에 대한 품질경영 교육 강화

표준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을 활용하여 건설회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한다. 또 토목, 건축, 건설안전 등 분야별 기술사 및 기사에 대해서도 품질경영 추진기법을 교육

한다. 이와함께 표준협회의 부문·업종별 교육과정에 건설업종을 추가하고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교육내용에 품질경영교육을 추가 또는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 건설업에 맞는 품질경영 추진기법의 개발 보급

건설업을 위한 품질경영의 도입·추진 단계별 추진요령, 품질보증활동 체계 및 운영요령 등 우리 건설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품질매뉴얼 및 품질경영이론 및 추진기법에 대한 세미나 등 학술발표회를 활성화하여 품질경영 우수도서 및 체험사례집 등을 보급한다.

④ 품질경영 활성화 분위기 조성

품질경영촉진 및 실천결의대회를 확대하여 전체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별, 지역별로 확대 실시한다. 지역별 품질경영대회에서는 품질분임조 개선사례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10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건설관련분야도 참여시켜 활성화를 유도한다.

⑤ 품질경영추진 우수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포상 확대

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여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우수기업에 대해 품질경영촉진대회를 개최하며, 이를 기업별, 조합 포상하며 품질경영 추진성평가 우수한 업체를 「품질경영 1백선」으로 선정한다. 이와함께 건설현장에 장인정신의 귀감이 되는 현장근로자를 「품질명장」으로 선발한다.

■ 품질관리 및 점검 강화

① KS사용 의무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전국 1천3백50개 KS사용 의무화 제품생산업체에 대해 시·도 지방 기술원, 각 시험연구원 및 KS협의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 특별 공장검사(페인트류, 보통합판, 복층유

리, 타일 등 65품목)

— 공시검사(레미콘, 철근 등 2품목)

— 시판품조사(벨브류, 배선기구, 전선류, 시멘트 벽돌 등 30품목)

를 통해 실시하며 품목별,분야별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② 상시기동자재점검반 운영 확대

현재 레미콘 사후관리를 위해 구성된 기동점검반을 건설안전 관련품목 20개 품목별로 확대 편성하되 분야별로 구성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문제야기 품목에 대해 집중 투입한다.

③ 주요 수입건자재 관리 강화

수입되어 현장에서 품질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철근, H형강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 등은 건교부와 협의한다. 이에따라 기준미달품 수입업체 및 사용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제재하도록 한다.

④ 불량 건자재 신고창구 개설

불량 건자재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하는데 있어 일반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의욕을 고취시킨다. 신고창구는 공진청, 지방공업기술원, 시·도 등에 설치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협회와 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 건설자재 KS제도의 보완

① 건설용 골재에 대한 KS허가제 실시 검토

골재에 대한 KS허가제를 실시하고 KS골재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레미콘의 불량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이때 골재는 마모율, 세척 상태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알카리 골재반응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석산골재중 부순돌(자갈)부터 실시하고 점차 부순모래로 확대한다.

② KS규격의 종합적 검토 조정

건축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철근, 강관,

알루미늄 압출형재, 레미콘, 벽돌, 블록 등을 중심으로 현행 KS규격중 품질관련 핵심부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정밀시공을 위한 제품(H형강, 강관 등)의 허용공차를 축소하고 벽돌과 블록 등은 내구성 향상을 위해 강도·흡수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골재관련 KS규격이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12종이 규정되어 있어 규격 해석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KS규격을 전면 검토하여 6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KS규격을 정비한다.

■ 건설자재 표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① 우선 표준화 대상자재 선정

건축물에 사용비중이 높고 표준화의 파급효과가 큰 자재를 우선 표준화 대상 자재로 선정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건축물의 치수와 관련되는 기본규격을 올 8월부터 96년7월까지 1년동안 전면 정비한다. 또한 단계별 계획에 의거하여

— 95년에 창호재 6품목

— 96년에 패넬재, 보온재, 조적재, 보드류 등 14개 품목

— 97~2000년에 유리, 위생설비, 철강재 등 34개 품목

등 우선 표준화 대상 자재의 규격을 정비한다.

신소재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매년 10~20개 품목씩 발굴하여 2000년까지 1백여종을 규격화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조립식 공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등의 조립식 공법에 사용되는 벽판, 바닥판, 지붕판 등의 부제도 98년까지 표준화한다.

② 자재 시험방법 표준화

건설자재의 품질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성, 차음성, 기밀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방법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건설관련 자재중 안전성과 밀접한 가스관련용품, 형강재 등 구조관련 제품의 표준화도 꾸준히 추진한다.